

# 북한의 사회 변화와 김정일체제 안정성

서재진 /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장

## 문제 제기

**북**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양극적이다. 구소련이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붕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현재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북한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다. 확실히 북한은 구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아직 스탈린체제의 원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가 경험한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난 및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사회주의와 공통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북한의 경제난은 다른 사회주의의 경우보다 훨씬 격심하다.

북한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권력 기반 개념을 몇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좁은 의미의 권력 기반과 넓은 의미의 권력 기반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좁은 의미의 권력 기반이란 권력 엘리트의 기반이라고도 말

할 수 있는데, 당·정·군의 권력 엘리트들에 대한 장악 및 보위부, 안전부, 군부 등 무력 기구에 대한 장악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권력 기반은 김정일 정권의 경제적·사회적·국제적 기반을 포함한다. 권력의 사회적 기반이란 정치 권력에 대하여 일반 주민들이 얼마만큼 동의하고 지지하느냐 하는 웨버의 정당성의 개념에 가깝다. 권력의 정당성은 정치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측면도 많지만, 경제적 상황 등 객관적 조건의 뒷받침이 없으면 취약해지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적·국제적 기반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며 톱니바퀴처럼 서로 얽혀 있다. 동시에 권력 엘리트 기반 및 김정일 정권과도 서로 연계되어 있다. 이 가운데서도 경제적 기반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경제 영역을 체제의 '토대'라는 말로 표현했을 정도이다. 이것을 도표로 표시하면 <그림>과 같다. 따라서 정치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권력 기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넓은 의

미의 권력 기반이 침식하면 좁은 의미의 권력 기반도 침식당하기 마련이다. 권력 기반은 넓은 의미의 기반이 공고할 때에야 비로소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는 넓은 의미의 권력 기반으로서의 사회적 기반의 변화가 권력 엘리트들의 정치적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그것이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권력 엘리트 장악의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공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일성 사망 이후 만 3년이 가까워지고 있으나 그동안 김정일의 공식 승계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건강악화설, 권력암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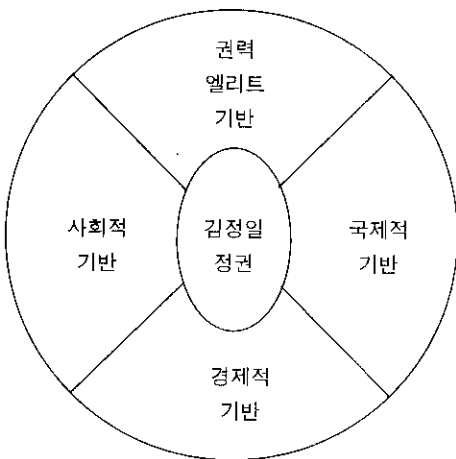
김정일은 군부와 당을 비롯한 모든 정권 기관에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로 채워놓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도 몇겹의 감시망을 통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좁은 의미의 권력 기반은 안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권력 기반인 국제적·경제적·사회적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편이다. 경제적 상황은 가히 위기적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 등 각가지 추측이 있었지만, 김정일의 권력 엘리트에 대한 기반은 대체로 공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지난 20여 년 동안 김일성의 후견 하에서 후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군부, 당, 보위부, 안전부 등 모든 정권 기관에서 김정일체제로 정비되었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김일성 사망 이후에도 유훈 통치라는 명분을 활용하면서 권력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적절한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좁은 의미의 권력 기반이 그만큼 안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은 군부와 당을 비롯한 모든 정권 기관에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로 채워놓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도 몇겹의 감시망을 통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좁은 의미의 권력 기반은 안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권력 기반은 어떠한가? 국제적·경제적·사회적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편이다. 경제적 상황은 가히 위기적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력갱생,

〈그림〉 권력 기반 개념도



북한의 사회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북한 사회를 집단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은 곧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한국의 사회과학자들이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위해서는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되어 객관적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유의점은 사회주의 사회는 이중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양에 대한 관찰만으로는 오판을 하기가 쉽다는 점이다.

주체사상의 이념은 사상누각이 되고 말았다. 무엇이 김정일 정권을 지탱할 것인가?

넓은 의미의 권력 기반의 침식이 좁은 의미의 권력 기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본고는 사회적 권력 기반의 실상을 분석하고 그것이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북한의 사회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시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 사회를 분석하는 기존 시각의 하나는 북한체제를 전체주의라고 규정하고 전체주의가 실제로 철저히 관철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북한 사회의 전형적인 구호의 하나인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체제가 다른 사회에 비하여 훨씬 전체주의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주의적 지배가 사회의 밑바닥까지 모든 개인에게 그대로 침투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전체주의·집단주의는 북한체제의 통치 이데올로기이다. 북한 사회에서 집단주의가 전일적으로 작동할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층은 북한의 지도부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북한 사회를 집단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은 곧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한국의 사회과학자들이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

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위해서는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되어 객관적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체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유의점은 사회주의 사회는 이중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양에 대한 관찰만으로는 오판을 하기가 쉽다는 점이다.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기 전에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지리라고 누가 예측했던가? 기존의 사회과학자들이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예측하지 못했던 이유는 감시와 통제가 엄격한 전체주의체제에서는 인민들의 외양적 행동이 위장되어 있었던 까닭에 관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동구사회주의체제에서 인민들은 사적인 행위 양식과 공적인 행위 양식이라는 이중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공식적인 공간에서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행동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적인 영역에서는 개인의 이익에 부합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행위하는 경향이 높다. 북한의 경우에도 사회 의식의 변화가 외부에서 직접 관찰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

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새삼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확실히 북한 사회도 그 이중적 특성에 있어서는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북한 사회

에 구소련이나 동구에서와 같은 수준의 제2의 사회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면 때가 이른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특히, 1989년 이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의 인식이 없으면 북한체제에서 사회 변화·사회 의식·사회적 불만을 논의하기가 어렵다.

본고는 이러한 시각에서 북한의 사회 변화가 북한 지도부가 추구하는 전체주의·획일주의에서 이탈하고 있는 사회 변화의 실상을 분석하고 그것이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북한체제에서 사회 변수의 중요성

그동안의 북한 연구가 김일성·노동당·주체사상의 연구에 치중하여 지배자·지배기구·지배 사상 분석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인식은 곧 정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정치결정론에 근거해 있다고 볼 수 있

북한체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영역은 간과되어왔다. 그러나 실제 북한체제의 특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의 하나는 사회 부문이다. 북한에서 정치 권력이 고도의 자율성을 누리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자율성이다. 김정일이 매우 자율적으로 정책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김정일의 정책 선택에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북한의 일반 주민 즉, 사회 부문이다.

다. 결과적으로, 북한체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영역은 간과되어왔다.

그러나 실제 북한체제의 특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의 하나는 사회 부문이다. 북한에서 정치 권력이 고도의 자율성을 누리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자율성이다. 북한의 정치 권력은 다른 사회와 마찬가지로 구조적 변수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대내 정책이나 대외 정책에서 북한의 지도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북한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은 북한 지도부에게는 없다.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우리식사회주의의 고수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개혁·개방이라는 정책 변화가 주민들의 사상 동요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 부문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매우 자율적으로 정책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김정일의 정책 선택에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북한의 일반 주민 즉,

북한이 50여 년 동안 폐쇄주의의 고수와 엄격한 사회 통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폐쇄주의를 지속하지 않으면 김일성·김정일 정권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엄격한 사회 통제를 유지하지 않으면 억압된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주의권의 붕괴·격심한 경제난으로 북한 지도부의 우려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리식사회주의를 구호로 폐쇄주의와 사회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사회 부문이다.

북한이 지난 50여 년 동안 폐쇄주의를 고수하고 엄격한 사회 통제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폐쇄주의를 지속하지 않으면 김일성·김정일 정권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엄격한 사회 통제를 유지하지 않으면 억압된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체제로부터 낙인찍혀 한많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회적 동태성은 억압되어 있는 것이지 사멸한 것은 아니다.

북한이 폐쇄주의를 채택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스탈린 사망 이후 사회주의권에 불어닥친 수정주의와 우상 숭배 비판, 반사회주의 민중 봉기의 여파가 북한에 불어닥칠 것을 우려한 때부터이다. 실제로 수정주의의 바람은 북한에도 밀려와 1956년 8월 종파사건이라는 현실로 나타났었다. 김일성은 이것을 계기로 폐쇄주의를 채택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을 만들었다.

북한 역사의 전개 과정을 특징짓는 하나의 큰 흐름은 북한이 외부 세계의 영향에 취약하였고, 또한 그러한 영향에 민감하게 대응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역사는 방어의 역사이

다. 주체사상을 지배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사실이다.

북한이 자본주의권과 적대 정책의 기초 하에 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에 대한 하나의 방어적인 태도라고 본다면, 북한이 같은 사회주의권과도 주체노선이라는 이름 하에 폐쇄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방어 전략이다. 북한은 자본주의와 단절하기 위하여 하나의 담을 쌓고 있으며, 사회주의권과 단절하기 위하여 또 하나의 담을 쌓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주위에 이중의 견고한 장막을 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사회주의권의 붕괴·격심한 경제난으로 북한 지도부의 우려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리식사회주의를 구호로 폐쇄주의와 사회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50년대 중반에 사회주의가 대변혁을 경험할 때 북한이 외부 세계와의 단절과 차단을 통해 김일성 정권을 수호하기 위한 이념적 도구로 주체사상을 만들었듯이, 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대변혁 속에서 다시 단절과 차단 이데올로기

를 강화하기 위한 개념들이 만들어졌다. 우리식사회주의론, 조선민족제일주의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외부의 변화가 국내에 침투하여 주민을 동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주체사상의 새로운 개념으로 만들어졌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의 지도부에는 충격을 받았으며 그 붕괴의 여파가 북한에 미치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의 원인은 사상의 변질때문이라고 보고 사회주의 사상의 순결성 고수와 사상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의 정책 선택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사회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나,

북한은 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사회통제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폐쇄주의와 사상 통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는 향후 북한 정권의 정책 방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변수임에 틀림없다.

최근 북한 사회에서는 경제난과 체제에 대한 불만에 기인하여 위로부터의 엄격한 통제체제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국가에 대한 불신인데, 그 형태는 ①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의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② 암시장의 발달과 함께 야기된 가치 의식의 변화이다.

### 북한 사회 변화의 실상

#### 국가에 대한 불신

북한에서 사회 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 경제난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체제에서 생필품의 대부분은 국가의 배급체계를 통하여 조달되는데, 경제난으로 인하여 식량을 비롯한 주요 생필품의 배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최근 북한 사회에서는 경제난과 체제에 대한 불만에 기인하여 위로부터의 엄격한 통제체제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사회 의식은 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급격한 경제 침체와 더불어 식량과 생필품이 부족하게 되자, 부족한 생필품 확보를 국가에 기대하기 보다는 개인 스스로 독자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크게 달라졌다.

국가에 대한 불신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식량 배급을 못하는 것이 사회주의인가”라는 식으로 사회주의체제에

북한의 식량난 등 경제난은 일반 주민들의 의식만 바꾼 것이 아니다. 북한의 권력 엘리트들도 위기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권력 엘리트의 대부분은 사회주의체제가 모두 붕괴하거나 변화한 마당에 이대로는 북한도 얼마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북한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이다. 남한에 흡수 통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며, 또 하나는 암시장의 발달과 함께 야기된 가치 의식의 변화이다. 북한에서 이제 암시장이 없으면 북한 주민들이 생필품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암시장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에서 암시장이 발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유통 구조에 자본주의적 요소가 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주민들의 식량과 생필품이 부족하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 상황의 문제이나 식량과 생필품을 조달하는 방식이 이렇게 변화한 것은 이미 체제 변화의 문제인 것이다. 북한경제체제의 근간인 배급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배급체제는 이미 붕괴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암시장을 통하여 생필품을 구입하고 동시에 이득을 올리는 직접적인 삶의 경험을 통하여 돈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가치 의식이 급격히 달라졌다. 개인주의·물질주의가 급속히 대안적 가치체제로 자리잡고 있다. 화폐에 대한 가치 변화, 개인소유주의 그리고 뇌물의 성행, 절취(pilfering)의 일상화 등 체제 일탈적인 물질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 권력 엘리트의 자신감 상실

북한의 식량난 등 경제난은 일반 주민들의 의식만 바꾼 것은 아니다. 북한의 권력 엘리트들도 위기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권력 엘리트의 대부분은 사회주의체제가 모두 붕괴하거나 변화한 마당에 이대로는 북한도 얼마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북한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이다. 남한에 흡수 통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외부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고위층일수록 위기감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지도부에는 북한 체제에 망조가 들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사회주의체제에 대하여 자조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김정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사회주의체제의 권력은 권력자들이 권력의 정당성, 체제의 우월성, 메시아적인 사명감, 군사력에 대한 무적성을 스스로 확신하고 있을 때나 안정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 관료 내에서 그러한 확고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체제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자신감의 위기가 깊을수록 체제의 붕괴는 가까운 것이다. 권력의 정당성 상실과 권력 엘리트의 사기 저하는 군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구소련

붕괴의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일부의 보수파 지도자들이 보수 회귀를 위한 쿠데타를 감행했을 때, 군부가 보수 회귀 쿠데타를 지지하지 않았고 또한 쿠데타에 저항하는 군중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를 거부한 것에 기인한다.

### 탈북 사태

북한의 경제난과 주민 의식의 변화는 탈북 사태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몇년 사이에 북한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으로 귀순하는 사람들의 수가 90년대 들어서 200 명에 육박하고 있다. 60년대의 65 명, 70년대의 15 명, 80년대의 49 명에 비하면 급격히 늘어난 숫자이다. 최근 들어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증가하는 배경은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 내부에서 밀어내는 요인을 들 수 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북한의 경제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자 주민들이 암시장 거래, 직장 자산이나 생산품의 횡령, 뇌물, 밀수 등 닥치는 대로 일탈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비리에 연루되어 당국에 쫓기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속히 증가하게 된 것이다. 둘째, 중국 및 러시아의 개방화와 더불어 북한 외부에서 탈북자를 유

북한의 경제난과 주민 의식의 변화는 탈북 사태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몇년 사이에 북한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 배경은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북한 경제 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주민들의 암시장 거래, 직장 자산 횡령, 뇌물, 밀수 등 비리에 연루되어 당국에 쫓기는 사람의 수 증가와 중국 및 러시아의 개방화와 더불어 북한의 외부에서 탈북자를 유인해내는 요인을 들 수 있다.

인해내는 요인을 들 수 있다. 중국 및 러시아가 개혁·개방 이후 개인 행동이 자유로워져 자 중국이나 러시아로 나왔다가 현지에 눌러 앉거나 남한의 사정을 알게 되어 남한으로 귀순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의 수교 이후 모스크바와 베이징에 설치된 한국대사관은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소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현지의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망명이 성사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상황을 잘 모르는 탈북자들을 유인하기에는 충분한 상황 변화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탈북 사태는 북한 당국의 국경 수비 강화 등의 대응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구동독의 붕괴가 구동독 주민들의 대규모 탈출을 계기로 이루어진 만큼 최근의 사태는 북한 정권에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피지배 계급의 지배 계급에 대한 적대감 확산

북한에서 간부와 비간부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불만



북한에서 피지배 계급의 지배 계급에 대한 적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체제 문제의 본질이 간부의 횡포와 부정부패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에게는 욕하지 않으나, 당 간부·안전부·보위부원에 대한 백성들의 원성이 높다. 북한에서 간부층은 주민들의 원한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높은 간부보다 일상에서 접하는 중간 간부들에 대한 적대감이 더 많다고 한다.

투성이고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내리누르기만 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이제 의식이 깎인 사람이 많다. 북한에서 '의식이 깎인 사람'이란 체제 문제의 본질이 간부의 횡포와 부정부패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무식한 사람은 미국놈이 원수라고 생각하지만 의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체제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 간부의 문제라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을 간부 세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간부와 비간부의 심한 불평등에 대하여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간부 입만 입이고 우리 입은 입 아니냐, 간부 아니면 죽어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한다고 한다. 간부와 비교하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생기는 불만이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죽는 것은 백성들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당 간부·안전원·보위부원들은 잘 먹고 잘 살지만 백성들은 죽는다는 것이다. 간부, 안전원, 군인 등 정권을 잡은 사람에게만 식량 배급을 준다는 것이다. 밖에서는 말을 잘 못하고 집안 사람끼리는 "죽는 놈은 노동자밖에 없다"고 말한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간부는 매우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은 간부들을 부정부패의 화신, 큰 놈은 크게 해먹고 적은 놈은 적게 해먹으며 뇌물없

이는 아무것도 안해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당의 노선과 사상과는 달리 북한에서 간부들은 자기 욕심 채우는 데만 급급한 부류로 인식되고 있다. 고위 간부들의 부정부패가 심하여 인민들의 생활이 이 모양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간부들은 팬티까지 외채를 입으면서 인민들은 죽으라는 것이냐 아니면 살라는 것이냐고 불평을 한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간부에 대한 적대감·울분이 많다.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에게는 욕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 간부·안전부·보위부원에 대한 백성들의 원성이 높다. 북한에서 간부층은 주민들의 원한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높은 간부보다 일상에서 접하는 중간 간부들에 대한 적대감이 더 많다고 한다.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간부층을 욕하는 것이 일상적이라고 한다. 온갖 쌍스런 욕을 다한다고 한다. "앉아서 놀고 먹는 것들, 인민들 피나 빨아먹는 놈들, 뭐하나 해결하려고 해도 뇌물, 뭐하나 승낙받자고 해도 뇌물" 등의 내용이다.

북한 귀순자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증언의 하나는 전쟁이 나면 군관과 안전원.

간부부터 씹죽이겠다는 것이  
다. 특히, 안전원에 대한 원  
한이 크다고 한다. 북한의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원에게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안전원들은 이들을 잡아놓고 엄포놓고 뇌물  
을 뜯어 먹는다는 것이다. 전쟁이 나면 안전  
원부터 씹죽이겠다고 버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전쟁만 나면 두고보자는 말을 자주 한  
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의 이러한 태도때문에 북한의  
간부들은 전쟁이 나면 총구가 내부로 지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  
서 귀순자들은 북한에서 민중 봉기가 나면  
바로 무력으로 진압할 것이라고 본다. 왜냐  
하면 북한 주민들이 당 간부·안전원·보위  
부원의 집을 먼저 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북한 주민들이 간부  
와 비간부의 관계를 이조시대의 양반 상놈의  
구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사람  
들은 요즘 양반과 상놈, 잘사는 사람과 못사  
는 사람이라는 이분법적 표현을 많이 쓴다.  
북한 주민들은 “양반, 상놈 차이가 너무 심하  
다. 우리 상놈들…, 우리 천민들…”이라는 말  
을 자주 쓴다고 한다. “네놈들은 양반이고 우  
리는 상놈이다”라고 적대시한다고 한다. 그  
러한 의미에서 북한은 신분 사회(status  
group society)이다. 북한에서 “제비는 제비

북한의 사회적 상황 변화가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북한체제 변화의 전망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은 민중 봉기가 북한에서 일어나 정권을  
전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저항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매우 가혹하기 때문이다.

끼리, 까치는 까치끼리 논다”는 북한 속담이  
유행한다는 것이다.

### 북한의 사회 변화가 김정일 정권 안정성에 미칠 영향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북한의 사회적 동  
요는 심화되고 있으며, 북한의 지도부는 사  
회적 불만의 폭발적 잠재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와 김정일 정권이 유지되  
고 있는 것은 체제의 정당성과 효율성때문이  
라기 보다는 감시와 처벌의 무력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체제의 이러한 위기적 징후는 권력  
엘리트의 정치적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이 또한 지적되었다. 권력 엘리트들은 체  
제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으며, 체제  
의 정당성에 대하여 회의를 품고 있다. 또한  
피지배 계급으로부터의 적대감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체제  
에 대한 문제점과 불만을 표출하지도 못하고  
수동적으로 복지 부동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의 변화가 김정일 정

북한의 사회 부문은 김정일 정권의 변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영향력의 행사는 직접적인 저항의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간접적인 압력의 방식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에서 일고 있는 사회적 동요가 김정일 정권의 변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사회적 동요가 지도부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고, 이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과 대응 방식에 따라 북한체제에 변화의 계기가 촉진될 것이다.

권의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북한체제 변화의 전망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은 민중 봉기가 북한에서 일어나 정권을 전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저항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매우 가혹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조직적 저항을 한다는 것은 엄두를 내기가 어려우며, 배라, 낙서 등의 엄밀하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의 사회 변화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북한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강조되어야 할 것은 북한의 사회 부문이 민중 봉기를 주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김정일 정권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북한의 사회 부문은 김정일 정권의 변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영향력의 행사는 직접적인 저항의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간접적인 압력의 방식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에서 일고 있는 사회적 동

요가 김정일 정권의 변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사회적 동요가 지도부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고, 이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과 대응의 방식에 따라

북한체제에 변화의 계기가 촉진될 것이다. 북한 사회의 동요와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반응을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위기 의식을 느낀 북한 지도부가 사회 변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회 통제와 사상 교양을 더욱 강화하고 개혁·개방을 지연하는 경우이다. 둘째, 주민들의 의식 변화의 원인이 경제 문제에 있다고 판단하고 경제 회생을 위하여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경우이다. 구소련에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신감을 상실한 북한 지도부가 변화와 현상 유지의 딜레마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노선 갈등을 야기시켜, 지도부가 분열되거나 소장파 군부의 주도에 의하여 정변이 발생하여 제3의 정권으로 교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째의 경우는 현재 북한 지도부가 선택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다. 이것이 문제를 악화시켜 둘째 또는 셋째의 경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둘째의 경우는 기대하기 어렵다.

김정일 정권의 구조적 한계로 말미암아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이다. 그러면 북한의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결국은 세번째의 유형으로 급속히 옮겨갈 수 있다. 그

이유는 김정일 정치적 한계때문이다.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의 정권은 변화의 논리가 아니라 현상 유지의 논리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구조적 요구(structural imperatives)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정일이 20년 동안 후계 준비를 해왔다고 하지만 후계자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의 수혜자라기 보다는 전임 장기 집권자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김정일 정권은 50여년 동안의 김일성시대의 모순과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 정권 50여년 동안 체제 유지를 위한 폐쇄주의, 개인 숭배, 역사 왜곡, 경제 비효율성 만연, 부정부패 등의 온갖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노정하고 있다. 북한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경제 논리가 권력 유지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김정일 정권은 아직도 정치 논리를 선호하고 있으며 폐쇄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배 엘리트들간에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서 대약진

북한 사회의 동요와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반응은 ① 위기 의식을 느껴 사회 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사회 통제와 사상 교양의 더욱 강화, ② 의식 변화의 원인이 경제 문제에 있다고 보고 경제 회생을 위한 개혁·개방의 추진, ③ 자신감을 상실한 지도부가 변화와 현상 유지 딜레마 속에서 지도부 분열이나 소장파 군부에 의한 제3의 정권 교체의 방향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운동과 문화대혁명을 계기로 지도부가 분열되었듯이, 북한에도 폐쇄주의의 경제체제 유지 여부를 둘러싸고 엘리트들간에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서 폐쇄주의, 단절과 차단을 핵심으로 하는 주체사상, 김정일 우상화가 모두 김정일 정권 유지를 위한 것이며, 그때문에 경제의 논리가 철저히 배제당하였다.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가 북한의 경제·사회 발전에 족쇄로 작용했던 것이다. 북한 경제의 해결을 위한 길은 정권의 명으로부터 경제를 해방시키는 길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역사적·경제적·사회적 요구로 보아서 김정일 정권은 과도적 정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 정권은 수년 내에 실각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 정권의 실각은 밑으로부터의 조직적인 저항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위로부터의 군부 쿠데타 형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군부 쿠데타도 조직적이고 계획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영웅 심리를 가진 개인이 난세를 구하는 혁명적 충동에 의하여 주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김정일이 실각한다고 해서 즉시

북한의 위기적 상황이 심화될수록 북한체제를 위기에서 구해주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외세이다. 미국은 북한의 체제 붕괴 및 대남 도발 가능성 방지를 위해 대북 지원을 통한 북한체제를 안정화시키는 연착륙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사회주의체제를 중국 안보에 대한 완충지대로 인식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덜 적극적이지만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를 선호하고 있다.

남북한 통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 새로운 정권이 경제난 수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들을 통합하고 농원하여 당분간 정권과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서 정권 교체가 발생하면 남북간의 교류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 맺음말 및 정책적 함의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북한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부분은 모두 김정일 정권의 장래를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상황을 통해서 볼 때 향후 북한의 경제난이 해결될 가능성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김정일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도를 급속히 약화시키고 있다. 북한체제는 이제 안으로부터 붕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런 위기적 상황이 심화될수록 북한체제를 위기에서 구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외세이다. 주체의 나라라

고 선전하고 있는 북한을 위기에서 구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한반도 주변 국가인 것이다. 한반도 주변 4국은 공히 한반도에서의 안정을 최우선적 목표로 삼고 있으며, 북한체제의 위기는 곧 한반

도 안정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위기적 상황이 발전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에 예기치 못한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체제 붕괴 방지와 대남 도발의 억지를 대북 정책의 당면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체제 붕괴 및 대남 도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북 지원을 통해 북한체제를 안정화시키는 소위 연착륙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을 위기로부터 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정치적 안정 하에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최대의 정책 목표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불안정은 곧 미국과의 관계에서의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사회주의체제를 중국의 안보에 대한 완충지대로 인식하여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되도록 북한에 대한 최소 한도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북한이

한국에 의해서 흡수 통일될 경우 중국의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정책을 당분간 지속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일본과 러시아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여 덜 적극적이지만,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요인이 바로 북한의 체제 유지를 가장 강력하게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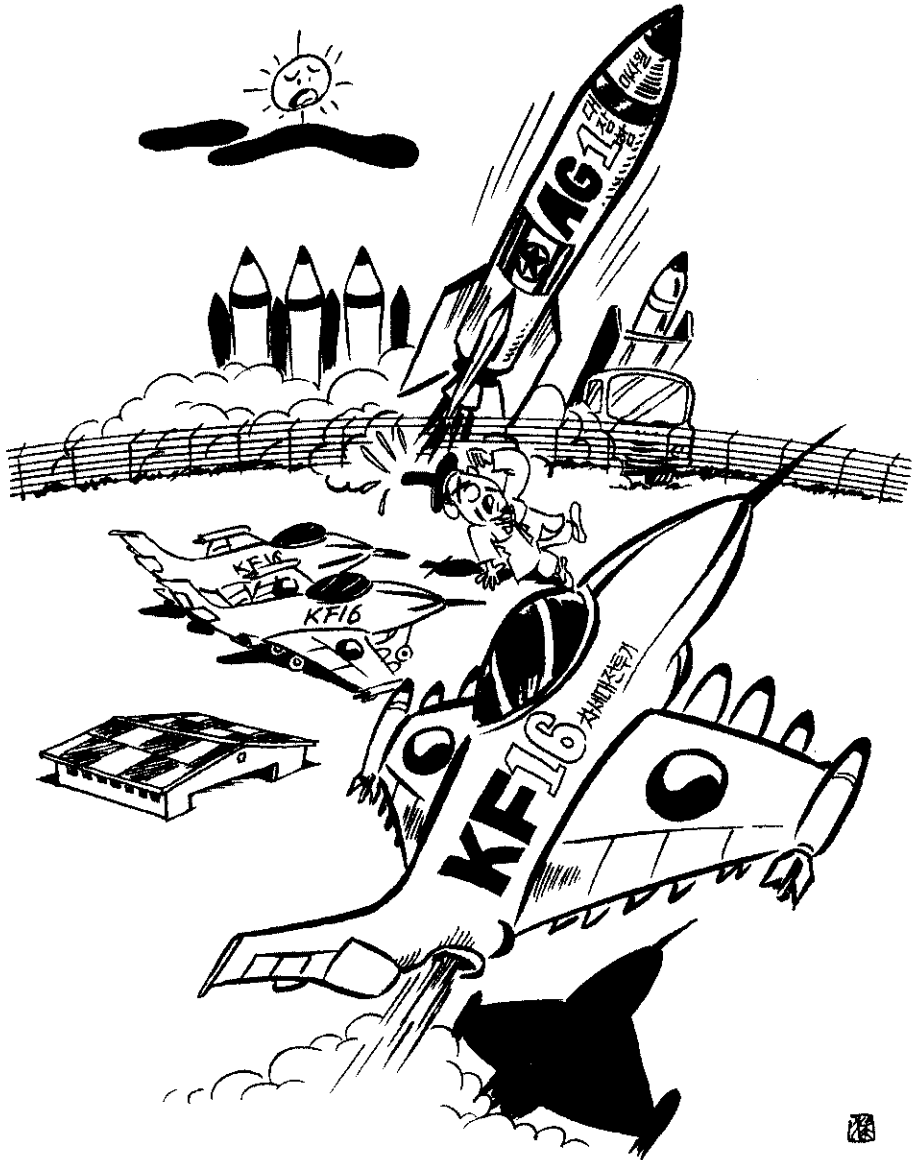
변화하는 북한의 정세에 어떻게 대응하며 한반도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주변 4국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에 한반도 통일의 향방이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위기에 처한 북한을 어떻게 통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촉진하느냐의 문제이며, 한반도의 안정을 추구하는 주변 4국에게 무엇이 진정한 한반도의 안정인지, 무엇이 보다 영구적인 안정인지를 설득하는 문제인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통일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통일의 시기와 방법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체제의 안정이 한반도의 안정이라고 인식하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설득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전쟁에 대한 위협을 유

한반도 통일의 향방은 변화하는 북한의 정세에 어떻게 대응하며 한반도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주변 4국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북한이 전쟁에 대한 위협을 유력한 협상의 무기로 삼고 있는 한, 북한체제는 한반도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주변 4국에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변 4국에게 통일된 한국이 보다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주변 4국이 추구하는 한반도 분단의 현상 유지는 북한의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며, 한반도의 통일없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도 없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력한 협상의 무기로 삼고 있는 한, 북한체제는 한반도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주변 4국에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변 4국에게 통일된 한국이 보다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주변 4국이 추구하는 한반도 분단의 현상 유지는 북한의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며, 한반도의 통일없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도 없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 경제가 현대화되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의 번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주변 국가에 설득시켜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북한의 폐쇄주의때문에 단절되어온 인프라와 교역을 연결함으로써 중국·러시아·통일 한국간의 시장 통합을 실현하고, 동북아의 지역 블록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2**

〈漫評〉 31



“번영을 저해하는 우울한 개발경쟁”